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말씀 제목 : 무너지지 않는 집 성경: 마태복음 7장
24-27절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7:24-27)

오늘 말씀의 집은 인생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누구든 인생을 살아가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딱 두 종류의 인생으로 분류된다. 반석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래도 반석위에 지은 사람보다는 돈도 훨씬 덜 들고 더 빨리 지을 수 있겠다. 틀림없이 더 화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위험하다. 반드시 비가 올 것이고, 바람이 불 것이며, 몇 년에 한번씩은 홍수가 난다. 그때 모래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진다.

반석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일까? 들을 귀가 하나 있는 사람이다. 들을 귀가 두 개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량이 넓은 척

하면서 둘 다 일리가 있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똑똑하려면 더 성실해야 한다. 그는 둘 중에 참 진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말도 저말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는 반쪽쪽이다.

대부분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 저런 의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저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면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할 수 없다고 한다. 하면 안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저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잠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게으름뱅이라고 규정지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무너진 인생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마귀의 말을 악하게 여기라는 뜻이다. 그 말이 그럴 듯 하여도 여전히 악한 것이다. 마귀의 말이 귀에 솔깃하다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발동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회개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라는 뜻이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으로 악을 대적하라는 뜻이다.

악을 대적할 때 내가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 하셨다.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7:1)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대적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심판을 선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악에게 대적은 하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여겨진다. 그러면 비판하는 것과 악에게 대적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도록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만 가지고 거기에 부정적 예측이나 짐작, 과장, 염려,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뒤섞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악을 대적하는 것은 사실이나 역사, 정확한 데이터, 증거나 증인이 확보된 정보로 상대방의 오해를 풀어주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상보훈이 끝나는 지점에 하신 말씀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철한 말씀에 다들 탄복하였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명하고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풀어준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다들 아멘으로 받았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살인행위 뿐만 아니라, 인격모독까지도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물론 그 죄의 댓가는 반드시 갚도록 하십니다. 하나님도 죄인의 인격을 모독하시지는 않으신다.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규범이 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신 계명에 관해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꼭 간음을 행해야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생각도 죄라는 뜻이다. 악을 피하는 것이 곧 악이다.

차라리 부지중에 저지르는 악보다 계획범죄가 더 큰 죄가 된다는 뜻이다.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다.

악은 대적하되, 악한자는 대적하지 말라. 인격과 그 몸과 그 재산과, 가정과 가족과 그 산업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해치지 말라는 뜻.

다만 그가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악한 것을 대적하라는 뜻.

그러나 예수님은 아멘으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인 것은 확실하다. 먼저는 듣고, 다음에는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듣고, 행동에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참여와 결단과 창조적 영성이 필요하다. 창조적 영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곰곰이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잘 적용하라는 뜻이다. 사람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욕심이 많고 핑계가 많고 죄에 대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지극히 단순한 과정도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더 그렇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갈증이 난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겸손하고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

유교에서도 공부함에 있어서 경외감을 아주 강조하였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사람됨을 위한 공부로 여겼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도 경외감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어른의 말씀인데 경외감이 없이 지적육구나 요리하는 사람이 고깃감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씀은 받아 먹어야 말씀이지, 내가 요리할 식재료가 아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양념을 쳐서 아무개에게 먹여야겠다고 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먹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열정이 생기거든 그 사람은 자신이 셀 리더감이 아닌지를 꼼꼼하게 생각해야 한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4:4)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싶어한다. 그래서 세포가 움직인다.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세포가 준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행동에 옮기기가 매우 수월해진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전도하자
말씀:디모데후서 4장 1-8절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4:1-8)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오늘날 한국사회는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한다.
- 전도를 위한 전략에 힘써야 한다.
- 불경기지만 그래도 전도를 해야 한다.
- 전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협력전도 해야 한다.(권근영목사)
- 오래 참으라.
- 가르치라.
- 경책하라. 잘못을 바로 잡으라.

-경계하라. 미리 예방하라.

-권하라. 코치하라.

3,4절;사람들은 허탄한 말에 속아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5.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최선을 다하라. 아멘.

찬양을 위해서 힘쓰자.